

성명서

2015년 10월 14일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 오후 도정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오찬장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도저히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.

이에, 강원도의회에서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추태를 보인 최문순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, 즉시 도정질문을 중단하고,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결과

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만취상태에서 신성한 도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것 자체가 도민과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더 이상 도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, 남은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.

작금의 사태가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호도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커녕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다.

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에서는 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.

2015년 10월 14일

강원도의회 의원 일동